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의 저출산·고령화 내용 분석 -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의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양 병 일*

Analysi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2015 and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Analysis of Social Studies Geography Section Textbook in the Middle School

Byung Il Ya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저출산·고령화 내용을 분석해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다양한 영역에 나타난 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의 내용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교과서에 설명될 때는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을 정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합계출산율과 시간적 비교의 관점이고, 고령화를 정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와 현상의 지속성이다.

주요어: 저출산, 고령화, 교과서, 가치 중립, 정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extbook produc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2015 and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definitions in various areas, and the content of the geography section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in relation to low birth rate and ag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are explained in textbooks, they need to be described in a value-neutral manner. Second, definition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need to be presented. The key elements for defining low birth rate are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perspective of temporal comparison, and the key elements for defining aging ar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persistence of the phenomenon.

Key words: low birth rate, aging, textbook, value neutral, definition

I. 서론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5년 1.24를 기록한 이래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통계청, 2022). 그리고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Professor,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iyang@bnue.ac.kr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3). 사회의 경제잠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인구구조 및 인구 규모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체 인구 규모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은 인구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해당하는 2.1명에 가까울수록 인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OECD 홈페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잠재력의 부정적인 요소를 넘어 우리나라 존립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실행했으며,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시의성, 절박성, 범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주로 사회과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변화, 그리고 지역별 인구문제 등의 맥락에서 교육되어왔다. 이는 저출산이 단순한 교양 교육의 수준을 넘어 학습자가 살아가게 될 사회의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교육내용의 유관적합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저출산이 가지는 이와 같은 교과 교육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과 교육의 연구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박윤경, 2012; 설규주, 2013; 우마이마사유키·이명희, 2013; 최만식, 2012)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회과 교육의 선행연구 중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었고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의 두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석을 통해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박선미·강순희, 2023)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근본 관점이 노동력·생산력의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왔음을 밝히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의 서술 내용에는 개인을 국가 발전에 위한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노인들을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다음으로 정문성 외(2019)는 체계적인 분석 틀을 중심으로 중학교 사

회 교과서 일반사회 및 지리 영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교과서 분석의 틀에 활용된 요소로는 적합성, 정확성, 구체성, 체계성, 포괄성, 균형성, 탐구성의 7개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교육의 요소들이 폭넓게 분석되고 있다.

이상의 두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를 정부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해 사회와 교과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했으며, 체계적인 분석 틀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지는 교과 교육적 요소 및 논쟁점을 폭넓게 다루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가지는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 그 논의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교수·학습 내용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두 연구 모두 연구 수행 시기상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교과 교육적 맥락에서 교수·학습하는 내용으로서의 저출산·고령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개념적 정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개념적 정의를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문성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분하거나, 정의의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용어와 정의가 교과교육 이외에 어떤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같은 폭넓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가 개발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의 가치의 측면과 정의를 중심으로 교과서 분석을 시행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저출산·고령화 내용을 분석해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는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의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이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를 다루는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을 위해서는 최근에 고시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 한 편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해 사회과를 구성하는 세 영역 중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어온 전통이 존재하는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첫 번째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지는 가치의 측면과 개념 정의의 측면에서 검토를 시행한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의 내용을 분석해, 교과서 제작에 관한 제안을 한다.

II.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내용

교육의 세 가지는 요소로는 가르치는 사람, 내용, 배우는 사람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실행을 통해 교육 활동이 구현된다(모경환·차경수, 2022: 114). 특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목표, 내용, 평가 등을 규정하는 교육문서로 볼 수 있다. 최근 교육과정 편찬의 경향이 대강화를 기조로 교사의 수업 구성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여전히 지역 교육청, 학교,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은 물론 교과서 제작의 준거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작업은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교육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보아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며,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18)은 각론으로 ‘별책 7’의 형태로 존재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문제와 관련된 인구 현상으로 인문환경을 다루는 지리 영역에서 가르쳐 온 전통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지리 영역이 포함된 사회과 과목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한다. 지리 영역이 포함된 사회과 과목에는 사회, 통합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여행 지리를 들 수 있다. 이 중 사회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까지 학습되기 때문에 크게 보아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사회로 나눌 수 있다. 초등학교 사회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목적과 초등학교 학습자의 발달단계가 고려되어,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다. 반면 중학교에는 세 영역의 분과 성격이 강화되어 역사가 사회와는 별도의 과목으로 존재하므로, 중학교 사회에는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지리 영역에 인구 현상과 인구 문제를 다루는 단원은 5학년의 ‘(1) 국토와 우리 생활’이다. 이 단원은 환경확대법을 바탕으로 4학년에 비해 학습 지역의 범위가 우리나라로 확장되어, 인구, 도시, 산업, 교통과 같은 우리나라 인문환경 요소들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점적인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중심적인 학습 대상으로 상정해 인구구조의 변천과 특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고령화를 다루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의 단원에서 가르쳐진다. 이 단원은 중학교 사회 과목의 내용 중 지리 영역에 속하는 단원으로 지역의 규모가 세계 및 우리나라로 설정되어 있다. 단원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세계 및 우리나라 지역의 규모에서 발생하는 인구 변화와 그로 인한 인구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단원의 주된 학습 내용이다. 이 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의 사례로서 다루는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라는 지역 규모에서 볼 때 선진국이 가지는 전형적인 인구문제가 저출산·고령화인 점,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에 관해 설명할 때 저출산·고령화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가 이 단원의 구체적인 사례로 다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지역적 사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관한 학습이 진행될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의 단원에서 학습된다. 이 단원의 학습 지역의 범위는 세계이며, 세계 수준의 인구문제와 자원 문제가 다루어진다. 인구문제로는 인구과잉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의 지역별로 나타나는 인구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교육과정에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것이 명

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루는 저출산·고령화와와의 차이점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학습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단순히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그 해결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그 해결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와 지역별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저출산·고령화가 위치함으로써 자원 문제, 지구촌의 정치 및 경제적 갈등과 같이 원인, 양상, 해결에 있어 상호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과 같이 가르쳐질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된다.

고등학교 한국 지리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의 단원에 배치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 학습지역의 범위는 우리나라가 상정되어 있으며, 우선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성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인구문제 및 다문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변화에 관해 탐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때 인구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저출산·고령화를 다룰 것이 학습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사회적 문제의 인과관계 및 양상, 그 대응 방안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세계 지리 과목과 여행 지리 과목의 교육과정 서술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직접적인 학습 내용을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세계 지리 과목의 경우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의 단원에서 인문환경 일부로 세계 인구의 변천, 지역적 차이, 이주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인구 변천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인구의 증가라는 인구 현상이 다루어지게 되므로, 인구과잉이라는 인구문제가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인구의 지역적 차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인구문제인 인구과잉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발생하는 인구문제와 관련된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학습 요소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학습 내용으로 포함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행 지리 과목에는 인구와 관련된 학습 내용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

정리하면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사회과에서 초·

중·고등학교에 걸쳐 가르쳐지는 내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내용은 초등학교의 사회 과목, 중학교의 사회 과목,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과목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지리 영역이 아닌 일반사회 영역에서 저출산·고령화가 다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학습지역의 범위로 보면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다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와 지역별 인구문제의 구체적 사례 또는 공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등장한다. 또한, 학습 내용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저출산·고령화가 가지는 인구문제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양상, 저출산·고령화의 해결 방법 및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급에 따라 학습지역의 범위, 학습 내용의 범위 및 깊이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교육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별도로 2024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적용이 예정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전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22) 역시 각론으로써 ‘별책 7’의 형태로 존재한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다양한 하위 과목으로 구성되면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구성과 과목명에 변화가 생겼다. 우선,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의 범주를 보면 이전의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외에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범주가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공통 교육과정은 과목명과 과목의 학교 급별 영역 구성은 그대로이지만,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목명에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 과목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이 같이 가르쳐지는 초등학교 사회와 역사 영역이 역사 과목으로 분리되어, 지리, 일반사회가

가르쳐지는 중학교 사회로 구분된다. 반면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목은 한국사 1, 한국사 2,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의 공통 과목,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의 일반 선택 과목,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의 진로 선택 과목,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우선, 초등학교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는 6학년 ‘(12) 지구촌 사람들의 단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실 수준의 교수·학습 실행과 교과서 제작의 실제적인 준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 저출산·고령화를 가르치라는 서술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사회 과목 교육과정의 서두에 제시되는 내용 체계에는 인구문제가 내용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사회는 환경확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학습의 지역적 범위는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6학년에 배정된 지구촌 사람들의 단원에는 세계의 여러 국가가 지닌 인구 특징을 파악하는 것

이 주된 학습 활동으로서 성취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구 특징과 관련해 학습하는 내용 요소로서 인구문제가 내용 체계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지역적 범위에서 인구문제를 다룰 때는 세계의 인구 변천으로 인구 증가에 대해 학습한 후, 인구 증가라는 인구 변천의 일반적 성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문제의 내용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문제로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과잉이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나타난다는 학습 내용이 빈번히 다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지역의 범위가 세계인 지구촌 사람들 단원의 학습에서 인구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저출산·고령화를 학습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사례 지역, 현상과 문제, 현상과 문제의 인과관계 등이 다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구 특징을 다룰 때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 지도할 것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서술되어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인구문제를 다루게 되면 식량부족 문제와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인구과잉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곧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표 1)에

표 1.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영역 ‘(3) 인문환경과 인간생활’의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 자연적, 인문적 특성은 특정 지역의 인구 분포, 인구 구성,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생략)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식 · 이해	인구	· 우리 지역 인구 정보	·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와 문제 · 세계의 인구 분포와 특징	· 지역별 인구 특징
		(생략)		
과정·기능		· 도시의 특징과 관련지어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 탐구하기 ·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특징과 인구문제 파악하기 ·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과 통신의 변화를 찾고, 생활 변화와의 관계 파악하기		· 지도상에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주요 인문환경 요소 위치 파악하기 · 각 지역의 인문환경과 주민생활 간 상호연계성 파악하기 · 다양한 데이터 및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당면 과제와 지역의 변화 추론하기 · 지역의 변화와 그 영향을 다양한 스케일 상의 다른 지역과의 상호연계성과 관련하여 파악하기
가치·태도		(생략)		

출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p.10을 바탕으로 저자 일부 수정

제시된 내용 요소로서 인구문제가 교실 수업과 교과서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내용 체계에 제시된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5학년 1학기 우리나라의 인구를 다룰 때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현상을 지칭하는 교육과정의 용어일 가능성도 있다.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2) 아시아의 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 성취기준 해설에 서술되어 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 과목의 지리 영역은 계통 지리 중심이었던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지역 지리를 바탕으로 하는 변화가 발생했다. 계통 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및 지역적 규모의 일반적인 인구 지리적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문제가 한 개의 단원으로 편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선진국의 인구 현상,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또는 인구문제 자체로 제시될 것이 예측되었다. 그러나 지역 지리로 변화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아시아의 지역성을 학습하기 위한 내용으로 인구 특성이 다루어지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증가가 가르쳐질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시아의 인구 특성을 지역 발전의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파악할 것이 성취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즉, 이 단원에는 아시아의 지역성 중 인구 증가라는 인구 현상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지역별 인구 현상의 일부로 저출산·고령화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인구문제의 원인으로 초점화해 가르치기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인구 현상의 수준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자세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작게 보인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나누어졌으며, 저출산·고령화는 통합사회 2의 ‘(5)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의 단원에서 다룰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원과 비교해 그 명칭이 같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학습 내용의 구성 및 구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단원에는 지구의 환경과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 중 하나로 인구문제가 가르쳐진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이 단원의 주제로 제시됨에 따라 인구문제,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국가 간 갈등과 협력 등의 상호 관련 있고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유기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하위 주제 중 하나인 인구문제가 다루어지는 학습지역의 범위는 세계이며, 세계의 인구 분포, 구조,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구 현상의 현황을 학습한 후 지역별 인구문제로 연결되는 학습 내용의 구조가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현상의 배경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되며, 학습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과 국가의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학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단원에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나타나는 지역, 인구문제 및 지속가능성과의 관련성,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학교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3)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의 단원에서 학습될 것이 예상된다. 이 단원에는 세계라는 학습지역의 규모를 바탕으로 인구 분포, 인구구조, 인구문제, 인구이동에 관한 학습이 진행된다. 성취기준 해설에 제시된 학습의 순서에 따르면 학습자는 세계 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지역별 인구구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구문제를 다루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우선 인구 분포 및 인구구조와 같은 인구 현상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지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인구현상을 일으키는 인구문제가 구분되어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지역별 인구 현상 또는 인구문제의 구체적 사례로서 제시될 것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관련된 지리적 인과관계, 사례 지역 등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 단원은 4개의 성취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성취기준은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 구조, 다문화 가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학습 내용으로서 첫 번째 성취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이 단원의 인구 학습은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확인, 분석, 정리하는 기능을 습득하

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식의 획득은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같이 인구 현상에 관한 지식의 획득, 그리고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문제에 관한 지식의 획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인구문제의 복잡성과 난제로서의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전 교육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사용되어왔던 용어가 저출생, 고령화로 변경되어 제시된 점도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의 미래 탐구에서 인구에 관해 다루는 내용이 성취기준에 등장하지만, 사회적 인구 증감과 관련된 국제이주에 따른 도시 공간의 문화적 다양성과 변화에 학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인구의 자연 증감과 관련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교수·학습적 맥락의 형성이 힘들다. 여행지리,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는 지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인구문제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나타난다. 그러나 두 과목에는 인구와 관련된 단원이 없으므로 인구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저출산·고령화가 교수·학습 내용으로 가르쳐질 가능성은 작게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교과의 지리 영역과 관련된 과목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 교수·학습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인구가 많다는 측면에서 아시아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는 아시아 내부 지역의 인구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간단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등학교에는 세계 및 우리나라 지역 규모를 바탕으로 인구문제의 구체적 사례로서 저출산·고령화가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확인된다. 따라서 인구문제의 배경, 원인, 결과, 해결 또는 대응 방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사례 지역, 현상과 문제, 현상과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등의 학습 내용이 학습될 것이 예상된다.

III. 저출산·고령화를 다루는 사회 과목 지리 영역의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관점

이전 장에는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수학습 내용을 규정하는 대강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저출산·고령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1, 2학년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바탕 한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과서는 현재 출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간된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과서 중 저출산·고령화를 다루는 지리 영역의 교과서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한편, 교과서 분석은 교과서의 양, 구조, 디자인 등을 분석하는 형식적 분석과 교과서에 나타난 개념의 내용과 적절성, 내용적 범위와 위계, 교과 교육적 맥락에서의 적절성 등을 보는 내용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형식적 분석보다는 내용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과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저출산·고령화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이 요구되며, 본 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관점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1. 인구 현상 또는 인구문제로서의 저출산·고령화

이전 장에 제시된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교육과정 서술에서 인구 현상으로 제시된 예도 있고, 인구문제로 서술된 예도 있다. 구체적으로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공통사회와 공통사회 2 과목에는 저출산·고령화 고령화가 인구문제로 언급되어 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 지리 과목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문제와 인구 현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과목의 지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의 일종인 특징으로 서술되거나,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는 교육과정에 인구문제와

인구 현상으로 혼란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저출산·고령화가 교과교육의 맥락에서 인구 현상인가, 아니면 인구문제인가를 분석의 관점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과교육의 내용으로서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과 인구문제 중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를 제시한다.

사회과는 근린 지역, 시군구, 시도, 우리나라, 세계의 지역 규모 속 또는 그것들을 관통하는 사회적 사상(事象)을 다루는 교과이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다루는 사상을 사회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사회문제로 보는가에 따라 학습 대상에 관한 교수·학습 맥락과 관점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습 대상에 관한 교수·학습의 관점은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 교육과정 및 비의도된 교육과정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저출산·고령화를 그 자체로 문제로 보는 시도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가 그 자체로 인구문제 즉 사회문제라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상이 된다. 즉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내어 제거하는 것이다. 고령화는 어떤 사회의 전체 인구 비율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저출산 또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원인이 되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의 영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 증산 기술의 발전 등을 멈추거나 퇴화시켜야 한다. 혹은 고령화 문제를 과격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다룬 일본의 영화 ‘플랜75’(연합뉴스, 2024. 1. 30.)라는 영화에서처럼 일정 나이가 되면 자기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사회적 강요를 합법화하는 등의 사회적 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이라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상술한 방법은 현재 상식과 윤리의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사회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즉, 고령화 자체는 현재 우리의 사회적 상식 및 윤리·도덕적 인식의 바탕에서는 문제로서 간주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

당하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고령화를 그 자체로 사회문제로 보면 노인 혐오, 노인 빈곤 등과 같이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심화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출산을 그 자체로 인구문제로 보면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서 원인의 제거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임기간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사회문제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간의 여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간주 되게 된다.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위치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결정권은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그것을 사회적 제도 및 관습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에 있는 출산 자체에 사회적인 가치를 투영해 저출산 자체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출산이라는 행위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 관련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또는 해야 하는 역할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즉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을 출산율이라는 어휘로 정의해 그 책임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지리 과목에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대신해 저출생의 용어가 쓰이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생물학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출산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중성적인 사회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자체로 인구문제, 즉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정의해 가르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를 다룰 때는 가치 중립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저출산·고령화가 다루어지고,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문제’를 사회문제로써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교육과정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저출산·고령화가 교수·학습될 때 저출산·고령화의 개념이 다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음 장에서 시행할 교과서 분석의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의 개념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첫 번째로 관련 개론서를 확인해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정의되어 제시되기보다는 관련 내용과 유사한 용어를 바탕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용어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한 인구 집단의 가임 능력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출산 빈도를 가리키는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저출산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설명된다(이희연, 2003: 250, 537). 예를 들어 출산력 수준이 낮은 나라, 출산력 저하 등과 같은 서술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출산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의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저출산을 구분 짓는 내용은 발견하기 힘들며, 저출산의 개념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는 출산력 지표의 상대적 비교, 출산력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감소한다는 인구 규모의 변화, 인구 근대화로 인한 한 국가 내 출산력의 저하와 같은 시간적 경향성 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은태·전광희, 2008: 133-154; 이희연, 2003: 250-296). 이를 통해 저출산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치 이상 또는 이하로 구분되는 절대적 개념이기보다는 출산력 지표를 이용해 어떤 인구 집단을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시간상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고령화는 저출산과 비교하면 그 정의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고령화 사회,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유사한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이 간접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박은태·전광희, 2008: 47; 이희연, 2003: 211). 예를 들어 특정의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인구 고령화이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정의된다. 그리고 노인은 노령인구, 노년

인구, 노년층, 고령자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면, 노인의 인구 기준으로는 65세 또는 60세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출처를 국제연합으로 밝히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구분되는 인구 집단의 구분이 제시되고 있다(이희연, 2003: 211). 예를 들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국가는 노년 인구 국가이고, 노년 인구 국가는 다시 노인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사회, 14-20%인 고령사회,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두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및 관련 개념은 인구구조에서 유소년층의 상대적 인구 비율의 증감이나, 구체적인 합계출산율의 숫자를 이용(김중훈, 2018; 심재권, 2008; 정성호, 2009)해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저연령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작아지는 현상 또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해당하는 2.1명 이하가 되는 현상을 저출산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저출산에 더해 합계출산율이 1.3 이하가 되는 현상을 초저출산으로 규정해 활용하는 연구의 사례도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 노인의 인구 비율에 따라 노년 인구 국가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눈 사례(김정호, 2004; 심재권, 2008; 이상림, 2012)도 존재한다.

세 번째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로서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사상을 규정하는 강제력 있는 요소로서 관련 법을 검토한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제3조에 명시된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의 고령화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명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론서와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고령화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법적 노인으로 구분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65세로 여겨지지만, 노인에 관한 법적 정의가 아닌 노인복지법과 같은 노인 관련 법을 통한 간접적 유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에 관해서는 그 정의가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저출산이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정책적 대응 사례에

서 활용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정부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있으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06년에 수립된 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부 자료를 참고하면 저출산의 정의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진 해를 저출산 현상의 구분 짓는 기준연도로 간주하는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간접적으로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고령화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인구 고령화로 서술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노인 인구의 나이 기준은 65세로 보며, 고령화의 정의를 개론서, 선행연구, 법에 등장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국제기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연합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먼저, 국제연합의 대표적인 세계 인구 관련 보고서로 국제연합 산하의 경제사회국 인구분과(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에서 출간한 202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 출산율 경향이 다루어지고 있는 보고서 제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13-15).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의 국가 간 비교 또는 한 국가의 시기별 비교를 서술할 때 출산율이 낮거나, 감소한다는 서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수치를 활용해 출산율 감소를 설명할 때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합계출산율의 기준치는 대체출산율인 2.1명이 활용되거나, 가임연령의 여성 한 명이 2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사례가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초저출산 현황의 기준이 되는 합계출산율 1.3명에 관한 내용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보고서에서 고령화의 개념 역시 명시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세계 및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현황과 비교, 그리고 시간대별 비교를 통해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변화해갈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7-8). 또한, 노인의 인구비율 7, 14, 20%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 기준은 발견하기 힘들며, 7, 14, 20%의 수치를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서술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고령화도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한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며, 또한 노인의 나이 기준을 65세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 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출산은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며 국가 및 사회 간 비교, 단일 국가 및 사회의 시간대별 비교에서 합계출산율의 상대적 적음 또는 감소를 나타낼 때 활용할 수 있는 출산력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력의 상대적 비교를 시행할 때 인구구조 변화의 분기점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적 기준은 대체출산율 2.1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출산력 지표 중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출산율의 종류에는 합계출산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출산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은 어떤 인구 집단의 가임연령 여자 연앙인구에 대한 연간 출생아 수에 대한 천분율로 나타내며 가임여성 1,000명당 평균 출생아 수에 해당한다(이희연, 2003: 253). 반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기간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연도에 산출된 연령층별 출산율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특정 연도에 출생한 여자의 동시 발생집단(코호트)이 가임연령기간 중에 경험한 실제 출생 수준과는 다른 것이다(이희연, 2003: 253). 더불어 출산율과 출생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겠다. 출생률은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이라고도 하며 한 사회의 출생 수준을 가장 간단히 표시해 주는 지표로서 1,000명의 인구당 일 년 동안에 몇 명이 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이다(이희연, 2003: 253). 따라서 가임기간의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는 출산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리하면 저출산에 관한 설명에서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면 출산율과 출생률이 다르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일반출산율이 아닌 합계출산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령화는 개론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법과 정부 정책에서 한 인구 집단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 상술한 것과 같은 고령화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와 같은 정의가 학술적으로 인용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학교 교육의 인구 관련 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누는 기준은 개론서에 출처로 표기된 국제연합의 최근 보고서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과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IV. 중학교 사회 교과서로 본 저출산·고령화 교육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획득한 관점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의 지리 영역을 분석한다. 우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구 현상 및 인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다루어진 전통이 존재한다. 또한, 초등학교는 지리 영역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인구문제가 아닌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사회 과목 만으로 8개의 출판사 교과서가 출간된 점을 고려하면 한 편의 연구로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분석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지리 과목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의 범위로 상정한다.

본 연구의 중학교 사회 과목 지리 영역의 교과서는 모

표 2. 분석 교과서의 중단원 명 및 범위

출판사에 따른 교과서	중단원 명	범위(페이지)
A 교과서	인구문제	130-133
B 교과서	인구문제	130-133
C 교과서	인구문제	130-135
D 교과서	인구문제	130-133
E 교과서	인구문제	132-137
F 교과서	인구문제	132-137
G 교과서	인구문제의 원인과 대책	136-139
H 교과서	인구문제	136-141

두 8종류이며, 교육과정에 확인하였듯이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에서 다루어진다. 교과서의 단원 구조에서 보면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는 대단원이 되고, 이 대단원은 교과서마다 명칭이 다른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된다. 3개 중단원의 내용은 인구 분포, 인구이동, 인구문제이며, 저출산·고령화는 세 번째 중단원인 인구문제에서 등장한다(표 2).

1. 저출산·고령화를 사회 현상 또는 사회문제로 서술한 교과서

8종 교과서의 인구문제 중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사회 현상 또는 사회문제로 다루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해결 방법의 2개 소단원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해결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의 인구문제 소단원 내용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로 나뉘어 제시되며, 그 내용은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인한 문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서술하는 내용에서 등장하며,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인구문제와 구별된 인구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문제의 해결 방법이 서술된 소단원에서 인구문제의 사례가 제시될 때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어려움,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문제라는 의미의 서술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B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해결 방법의 2개 소단원과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인구문제의 소단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으며, 서술 내용은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인한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해 현상이라는 명시적 용어와 함께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소단원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알아보는 활동에는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자체를 문제로 간주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C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2개 소단원과 실버산업에 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인구문제 소단원은 세계의 인구 증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인구문제와 해결 방안이 따로 제시된 다른 교과서와 다른 내용의 구조를 나타낸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설명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에 등장하는데 그 설명이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저출산·고령화의 내용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용어 없이 인구 현상으로 설명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제시된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이전 단락의 서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라는 용어가 제시되며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구조를 보면 서술의 순서상 처음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으로 간주 되어 설명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인구 현상으로 서술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라는 용어는 등장하고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를 그 자체로 인구문제로 설명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 교과서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현상과 인구문제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모호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의 2개 소단원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비교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내용에서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발생한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현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E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의 2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인구문제는 세계의 인구성장,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 선진국의 인구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선진국의 인구문제는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대책이 서술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에서 인구 현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문제 소단원의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영향’,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대책’이라는 소제목을 바탕으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활동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F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대책,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이라는 4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대책,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에 해당하는 소단원 3개와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활동에 나타난다. 선진국의 인구문제에는 저출산·고령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과 함께 저출산은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는 고령화 현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소단원 2개와 활동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서술되고 있다.

G 교과서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변화,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 선진국의 인구문제에 해당하는 3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해결에 관해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는 인구문제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대책도 같이 다루어진다. 이 중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을 탐구하는 활동에 등장하며,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하는 인구 현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H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에 해당하는 3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우리나라 인구문제와 대책에 등장하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명시되어 서술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에는 저출산 문제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내용의 배열 구조를 보면 8종 교과서 모두 도입 활동, 34개의 소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는 크게 보아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법,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법,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의 제시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A, B, F 교과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가 하나의 소단원으로 제시되고, 이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이 별도의 소단원으로 제시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C, D, E, G, H 교과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안이 하나의 소단원에 동시에 제시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이 C, E, F, H 교과서에는 소단원으로, A, G 교과서에는 활동에 나타나는 데 반해, B, D 교과서에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저출산·고령화는 소단원과 활동에서 나타나는데, 소단원의 경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활동의 경우 활동의 제목이나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서술에 등장한다.

총 8종의 교과서 중 저출산·고령화를 현상으로 다루는 교과서는 4개, 현상과 문제로 혼용해 다루는 교과서는 3개, 문제로 다루는 교과서는 1개로 나타났다(표 3). 구체적으로 A, D, E, G 교과서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을 다루는 소단원에서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발생한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대책이 내용으로 등장하는데, 저출산·고령화는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용되는 어휘는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표 3. 교과서에 활용된 저출산·고령화의 용어와 관점

출판사에 따른 교과서	용어	관점
A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현상
B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혼용
C 교과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문제
D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현상
E 교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현상
F 교과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문제	혼용
G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현상	현상
H 교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저출산 문제	혼용

다음으로 B, H 교과서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소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대책을 다루는 활동에는 저출산·고령화를 저출산 문제 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용어로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F 교과서에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소단원에서 저출산은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는 고령화 현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을 다루는 소단원과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활동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는 용어도 나타나고 있다. 즉, B, H, F 교과서에는 저출산·고령화를 현상과 문제로 보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C 교과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을 다루는 소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의 용어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현상과 문제로 혼용해 서술하는 B, H, F와 달리 저출산·고령화를 현상으로 언급하는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의 교과서

중학교 사회 8종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A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 중 선진국의 인구문제에 관한 내

용에서 설명된다. 저출산에 관한 설명은 그 원인, 정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인으로는 산업화, 자녀에 관한 가치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저출산의 정의로 출생률이 점차 낮아져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출산 현상을 한 집단의 시간적 비교를 통한 변화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시간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출산율 또는 합계출산율이 아닌 출생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그 정의에 관한 내용 없이 생활 수준의 향상, 의학 기술의 발달,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고령화의 원인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 경제침체, 사회 보장비 지출의 고령화에 따른 결과만이 제시되어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소단원에서 나타난다. 저출산은 원인, 정의, 결과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전체 인구감소,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의 어려움이 결과로 서술된다. 단, 원인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에 관해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대별 출산율 변화의 관점으로 저출산의 개념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대별 비교를 위해 기준이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은 나타나지 않으며, 합계출산율의 용어도 활용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고령화는 정의에 관한 내용 없이, 평균수명의 증가와 같은 원인과 더불어 노인 소외 현상, 노인 인구 부양비와 복지 비용 증가, 세대 간 갈등과 같은 결과만이 제시되어 있어 그 개념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C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개념은 지역별 인구문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2개의 소단원에 제시된다. 저출산의 정의와 결과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 등장하며, 자녀 양육비 부담, 결혼 연령 상승, 미혼 인구 증가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 등장한다. 저출산의 정의에 관한 서술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시간적 변화의 표현이 쓰이고 있지만, 이는 합계출산율이

아닌 총인구수에 관한 것이다. 합계출산율과 관련해서는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저출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대별 출산율 변화의 관점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간대별 변화가 아닌 타 집단 비교의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표현을 성립시키기 위한 비교 대상 역시 서술되고 있지 않다. 한편 저출산의 정의를 설명할 때 출산율이 아닌 합계출산율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설명할 때 출생률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리고 낱개 글로 제시된 합계출산율의 설명에서 대체출산율 2.1명의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초저출산 사회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 정의, 결과 모두 선진국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 나타나며, 의료 기술 향상, 평균수명 연장을 원인으로, 노년층 인구 비중이 커지는 것을 고령화의 정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누는 개념이 낱개 글로 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에 관한 설명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노년층 인구 부양 부담 증가와 같은 결과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D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문제의 소단원 중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내용에서 서술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혼인 연령 상승, 육아와 가사 부담이 제시되고, 노동력 부족, 경제침체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의 정의에 관해서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으로 의료 기술 발달, 평균수명 증가가 제시되고,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의 정의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상임을 나타내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문제의 소단원 중 선진국의 인구문제의 내용과 우리나라 인구문제 소단원에서 설명된다. 저출산의 정의를 보면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는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서술하는 반면,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서술할 때는 6.25 전

쟁 이후 및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에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시간대별 비교의 관점이 적용된 서술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과 출생률의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정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노인 구가 급증한다는 것과 같은 설명에 멈추고 있어 인구 집단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 7, 14, 20%로 나누는 내용이 노령화를 설명할 때 낱개 글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는 따로 서술되기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같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과 정의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 모두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할 때는 선진국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할 때보다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택 마련 비용 증가, 사교육비 증가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된 원인이 서술된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정의가 제시될 때 노인 인구의 급증,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같은 고령화 심화의 시간적 강도가 강조된다.

F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 나타난다. 여성의 지위 상승,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육아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인구문제의 원인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두 소단원에서 내용상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저출산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는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는 1980년대와 비교해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즉, 저출산을 시간대별 비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출생률과 출산율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과 결과는 제시되고 있지만, 고령화의 정의는 서술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로 구분하는 개념이 낱개 글이 아닌 본문의 글에 서술되어 있다.

G 교과서의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선

진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 나타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초혼 연령,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과로는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제시된다. 저출산의 정의로는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표현이 제시되어 시간대별 비교의 관점이 적용되었지만, 비교의 구체적인 시간대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출산율 또는 합계출산율이 아닌 출생률의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의 정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다루는 활동에는 합계출산율의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 기술 발달, 평균수명 연장이, 결과로는 노인 인구 부양 비용의 증가가 제시되었다. 고령화의 정의로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서술이 등장하지만, 지속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H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서 설명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제시된다. 저출산의 정의로는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표현과 함께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설명하는 소단원에서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가 본문에 등장한다. 즉, 시간대별 비교의 관점이 적용되었음에도 비교의 시간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용어와 관련해서는 출산율을 합계출산율로 정의하려는 간접적인 시도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의 발달, 생활 수준 향상, 평균수명 연장이, 정의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다. 고령화의 정의에서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드러내 줄 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로 구분하는 내용이 낱개 글에 설명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는 따로 구분해 제시되지 않고 둘의 상호 작용 결과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동시에 서술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8종의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원인, 정의, 결과로 서술되어 있으며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첫 번째로 저출산의 정의와 관련해 8종의 교과서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A, B, E, F, G, H 교과서는 저출산의 정의를 시간대별 비교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A, B, G, H 교과서가 시간대별 비교를 위한 기준 시간대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E, F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설명할 때 현재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시간대를

6.25 전쟁 이후 및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후반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저출산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C 교과서는 저출산의 정의에서 다른 사회 집단의 비교 관점을 택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D 교과서는 저출산의 정의에 관한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저출산의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기준으로 8종의 교과서를 분류할 수 있다. 저출산의 정의를 위해 A, G 교과서에는 출생률이라는 용어가, B 교과서는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활용되었으며, D 교과서에는 저출산 정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C, E, F, H 교과서에는 저출산의 정의를 위해 출산율, 합계출산율, 출생률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H 교과서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출산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출산율의 용어가 활용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세 번째로 고령화의 정의에 따라 8종의 교과서를 분류할 수 있다. 고령화 정의에 있어 주요한 내용은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과 고령화가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C, D, G, H의 교과서에는 노령화의 정의를 위해 노인 인구의 비율에 관한 서술이 포함되었지만, 지속성을 나타내는 설명을 포함한 정의는 어떤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나아가 A, B, F의 교과서에는 고령화의 정의를 위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가 아닌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설명만이 제시되고 있다.

네 번째로 특정 수치를 바탕으로 저출산 또는 고령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가에 따라 8종의 교과서를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 E, F, H의 교과서에는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비율 7, 14, 20%를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설명하는 개념이 활용되었다. 특히 C, E, H의 교과서에는 위 개념이 낱개 글로 소개되는 것과 달리 F 교과서에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사회를 초저출산 사회로 규정하는 내용이 8종 교과서 중 C 교과서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리 영역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 내용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저출산·고령화 자체를 인구구조의 변천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내용을 발견하기 힘들며, 중학교에는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의 단원에서 직접 다루게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내용 체계표에 인구문제가 명시되어, 저출산·고령화를 직접 다루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의 인구문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지역 지리가 중심이 되면서 저출산·고령화를 자세히 다루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두 교육과정 모두 통합사회 및 한국 지리 관련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세계 지리, 여행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과 같은 선택 과목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서술을 찾아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저출산·고령화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출산·고령화가 교과서에 설명될 때는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자체로 문제가 기보다는 사회가 발달 또는 성숙해 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두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본 연구의 중학교 교과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현상과 문제로 혼용하거나, 문제로 명시하는 교과서는 8종 중 4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지리 영역의 교과서에는 저출산·고령화를 문제가 아닌 현상으로 통일해 서술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문제를 서술할 때는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저출산 현상에 따른 문제’, ‘저출산 현상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등과 같이 저출산

자체를 문제시하는 듯한 표현을 지양하기 위한 서술상의 표현이 궁리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를 교과서에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이상의 제안과 비교해 더욱 적극적인 시도로서 교과교육에서 저출산 용어 사용에 관한 재고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에서도 밝혀졌듯이,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단원 성취기준에서 저출산의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이는 저출산이 문제라는 용어와 접합하지 않더라도 저출산의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성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출산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생물학적인 의미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 관련성 또는 책무성을 사회적으로 강요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이라는 현상의 비난 대상으로 여성이 상정되기 쉽다. 현재, 저출산의 용어가 가지는 이와 같은 성격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으로 고찰한 연구(김영미, 2018; 배은경, 2021)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성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성별 중립 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저출산의 용어를 저출생 등과 같은 용어로 변경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향후 제작되는 교과서에는 저출생의 용어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된다.

두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적 작업은 그 현상과 관련된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가 교과서에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우선, 저출산을 정의하기 위한 요소로 합계출산율, 시간적 비교의 관점을 제안한다. 합계출산율은 본 연구에서 개론서, 선행연구, 법, 정부 정책, 국제기구에서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출산력의 지표가 일반출산율, 출생률이 아닌 합계출산율이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출산율이라고 서술하면 일반출산율이 아닌 합계출산

율을 의미하므로 교과서 서술에는 출산율의 용어를 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출생률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거나, 교과서 서술의 의미상 일반출산율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저출산의 개념은 어떤 출산력 지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비교를 위한 상대적 개념임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저출산의 정의를 제시할 때는 한 집단이 어떤 시점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 대상이 되는 사회의 인구 변화 중 비교의 기준 시간대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정의로서 어떤 사회의 인구 집단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본 논문의 3장에서 살펴본 고령화 관련 문헌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고령화의 요소인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및 현상의 지속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편,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로 구분하는 개념은 현재 국제연합의 인구 관련 대표적 보고서에도 발견하기 힘들므로 교과서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현재 출간된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도출한 결론이다. 따라서 향후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근거해 개발된 교과서의 내용을 본 논문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작업을 후속 연구를 위한 내용으로 언급해 둔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구정화 외 11인, 2023, 중학교 사회 ②(5판 1쇄), 천재교육.
- 김경호, 2004,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사회연구, 1, 27-52.
-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김영순 외 13인, 2023, 중학교 사회 ②(6쇄), 동아출판.
 김중훈, 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55, 61-74.
 김진수 외 14인, 2023, 중학교 사회 ②(6쇄), 미래엔.
 대한민국정부,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모경환·차경수, 2022, 사회과교육(제3판), 동문사.
 모경환 외 11인, 2023, 중학교 사회 ②(제6판), 금성출판사.
 박선미·강순희, 2023,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교과서의 내용 분석: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62(1), 47-67.
 박윤경, 2013, “미국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인구 교육 내용 분석”, 시민교육연구, 45(4), 67-100.
 박은태·정광희, 2008, 인구학 입문, 경연사.
 박형준 외 12인, 2023, 중학교 사회 ②(6판), 천재교과서.
 배은경, 2021,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연구, 21(2), 137-186.
 설규주, 2013, “사회 교과서 속 저출산·고령화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2(3), 31-50.
 심재권, 2008,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농촌과 도시지역의 산업구조변화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125-146.
 연합뉴스, 2024년1월30일자, “플랜 75’ 하야카와 감독 “고령자의 삶 생각해보는 계기 되길””,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144400005?input=1195m>, 2024년 1월30일 접속).
 우마이마사유키·이명희, 2013, “한·일 양국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단서로-”, 사회과교육, 52(4), 1-22.

이민부 외 11인, 2023, 중학교 사회 ②(3판 4쇄), 박영사.
 이상립, 201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35(2), 1-28.
 이진석 외 14인, 2023, 중학교 사회 ②(6쇄), 지학사.
 이희연, 2003, 인구학, 법문사.
 정문성·김경모·박기범·설규주·전영은, 2019,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내용 분석”, 시민교육연구, 51(1), 239-273.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4), 161-183.
 최만식, 2012, “고등학교 2009 개정 ‘사회’ 교과서의 고령화 관련 단원 내용 분석: 고령화 교육 적합성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33(1), 103-128.
 최성길 외 13인, 2023, 중학교 사회 ②(6쇄), 비상교육.
 통계청, 2022, 2022년 출생통계.
 통계청, 2023, 2023년 고령자통계.
 OECD 홈페이지, DATA(<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2023년12월1일 접속).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wpp2022_summary_of_results.pdf, 2024년1월2일 접속).

접 수 일 : 2024. 01. 30

수 정 일 : 2024. 02. 19

게재확정일 : 2024. 02. 20

교신: 양병일,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
 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biyang@bnue.ac.kr, 051-500-7226)
 Correspondence: Byung Il Yang, biyang@bnue.ac.kr